

문화

스페인 영화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광주시네마테크 내달 6~12일 '스페인 영화제'

'스크린으로 떠나는 스페인 기행.' 정영의 나라 스페인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광주시네마테크와 주한 스페인대사관이 주최하는 스페인 영화제가 오는 8월6일~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개봉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북극의 연인들' 등 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스페인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신진 감독들과 중견 감독들의 근작을 통해 스페인 영화의 흐름과 함께 스페인의 역사·문화 등도 만날 수 있다.

올리오 메넴 감독의 영화는 두편이 상영된다. '혼란스러운 나'는 최면을 통해 자신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 소녀 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환상적인 분위기로 그린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은 화제작 '북극의 연인들'이다. 8살 때 처음 만난 두 남자의 운명적 사랑이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핀란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나 없는 내 인생'과 '사랑해, 파리'를 통해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성 감독으로 떠오른 이사벨 코야셋은 할리우드 스타 팀 로빈스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시크릿 라이프 오브'

위즈'를 통해 상채받은 두 사람이 교감하는 과정을 애뜻하게 풀어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여자가 삶을 정리하는 10가지 방법을 스크린에 옮긴 '나 없는 내 인생'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작품이다. 바르셀로나의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의 다섯 가지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호세 코르바초 감독의 '타라스'는 2005 몬트리올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이며 '요'는 라파 코르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페인물이다.

그밖에 전설적인 스페인 플라멩코 가수 카마론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이사카 라쿠에스타 감독의 '시간의 전설'은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문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지와 형형색색 빛이 만나면...

노은희 및 단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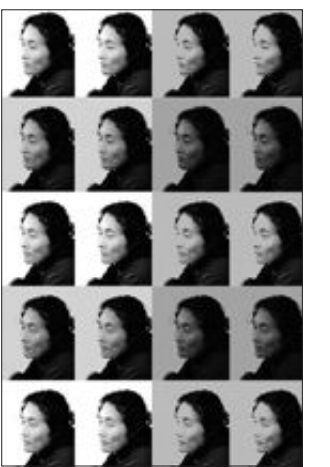
섬유작가 노은희(조선대 미대 교수) 씨가 조선대 미술관(8월1일까지)과 광주 한도음식박물관(8월12일~19일)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갖는다. 한지를 곁들이는 평면·설치 작품을 선보였던 노씨는 이번 전시에서 '한지+빛'을 주제로 한지, 발광다이오드(LED), 광섬유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한다.

한지를 붙여 구조물을 만든 뒤 LED

를 이용해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게 했고, 곡선을 타고 빛을 내는 광섬유를 이용해 형형색색의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서울, 광주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현재 조선대 디자인대학원장, 한국공예학회 이사, 한국에슬화회 이사를 맡고 있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상설치작가 나명규 서울전



영상, 설치작가 나명규씨가 오는 8월4일까지 서울시인사당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에서 '현대인-Composition'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나씨는 이번 전시에서 사람의 몸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

조그런데 알몸의 남자를 구겨진 비닐 안에 가둬 놓은 작품인 '현대인'은 몸의 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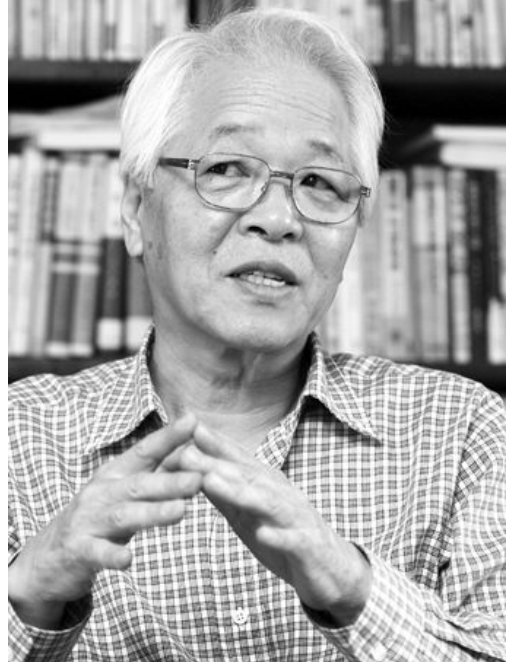
조선대 미술대학과 뉴욕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서울, 미국, 광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부산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현재 그룹광장, 점·선·면 그룹, 환경미술협회, 백학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들만의 천국'으로 간

이·청·준

문학과 삶 다시 엮는다



내일 장흥서 1주기 추모행사 ... 추모사업회 발족·전집 발간도

"이승애 / 그림자를 남겨 놓고, 자네 / 담배연기와 함께 사라진 지 / 1년이 지났다. / (중략) / 시간 바깥으로 나가 / 시간의 한 귀퉁이를 또렷하게 하는 / 그림자 나그네여 / 평소 좋아하던 소주 한 잔 권하며 / 삼세(三世) 관동 / 공안(公案)을 염송하네 / 평안 평안 평안"(정경중 '그림자를 남겨 놓고' 중)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 이청준(1939-2008)이 타계한 지 31일로 꼭 1년이 된다. 1주기를 즈음해 고인의 치열했던 삶과 문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추모행사와 문집발간이 이어지고 있다.

기일인 31일에는 고인이 생전에 "내 삶과 문학의 뿌리"라고 말하곤 했던 고향 장흥에서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다.

장흥군과 이청준추모사업회(회장 김병익)가 주최하고 장흥북문학회(회장 김석중)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문인 후배·제자들과 선생이 석좌교수로 제직했던 순천대 교수와 제자들도 함께 예정이다.

소설가 문순태씨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회고하고 송수권 시인은 추모시를 읊는다. 또 순천대 학생들이 고인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전남도립극단 단 감독과 수석이 생전에 선생이 끄찍이 좋아했던 관소리 '더는' 한 대목을 풀어놓는다.

고인을 기리는 추모문집도 발간됐다. 문학과지성사는 최근 추모문집 '영원한 축제'를 비매품으로 출간했다.

추모집에는 지난해 영결식에서 읊은 각종 추모글을 비롯해 김은식, 김병익, 박완서, 한승원, 이승우, 신경숙 등 여러 문인들이 고인의 타계 이후 발표한 추모 글들을 묶었다. 또 타계 당시 언론보도도 사진과 함께 실었다.

고인의 전집 발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3년 열린원은 전 25권의 이청준 전집을 완간했는데, 문학과지성사는 여기에 2003년 이후의 작품을 추가해 총 30여 권 규모의 전집을 새로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전집출간을 위해 목록, 본문작업 등이 진행 중이며 시대 순으로 정리한 단편 2, 3권과 장편 2, 3권이 1차 분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전집은 내년 2주기 즈음해 4~5권씩 순차적으로 출간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청준 선생은 타계 이후에도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더욱 진한 문화적 향기를 풍긴다"며 "추모행사가 '제2회 정남진 문학제' 기간에 진행돼 그의 문학을 그리워하는 추모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흥군은 그의 생각을 사들여 답사여행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 2011년 이청준 문학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모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서울 해화동의 아르코미술관에서 '이청준 추모사업회' 발족식과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흥=김용기기자 kykim@

靑少年 오케스트라 광주공연

내달 20~21일 문예회관 대극장

아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Asian Youth Orchestra·사진)가 오는 8월20일~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20일 오후 7시30분에 시작하는 첫 공연은 리처드 폰트우스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장 루이스 스토이어만 등이 참여해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Adagio for Strings)' '라벨 볼레로(Bolero)'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Piano Concerto in G)' 등을 들려준다.

또 다음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두 번째 공연은 제임스 저드의 지휘에 맞춰 '브람스 교향곡 제4번 마단조(Symphony No.4 in E Minor)'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Piano Concert No.20 in D Minor, K. 466)' 등을 연주한다.

무료공연이며, 입장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yokorea.kr)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87년 창단된 아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전문 음악인 104명으로 구성됐다. 문의 02-581-04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m (주)국민법률경매' (Km National Law Auction). It features the Km logo, contact information (0621364-8700, H.P 010-4608-3700), and a detailed table of auction lots across various districts (Gwangju, Gyeongju, etc.) with columns for lot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The table is organized by district and includes sub-section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ies.